



# 여름 제주에 소년소녀 발레 꿈나무 모인다

탄츠올림프·제주시티발레단 8월 5-8일 집중교육 첫 개설 마지막날엔 참가자 시연 무대 셀프 재활치료·운동법도 강의 제주 참가자엔 해외 특전 추진



니나 아나니아쉬빌리 울렉시 베스메르티니 김애리 김공수 김길리

여름 제주섬에서 국내 발레 영재를 발굴하고 키워내려는 프로젝트가 첫 발을 뒀다. 올해까지 3회째 국제무용콩쿠르를 열고 있는 탄츠올림프아시아(대표 김공수)와 제주시티발레단(단장 김길리)이 협력해 선보이는 '제주 서머 발레 인텐시브 코스&소소한 발레 공연'이다.

이 사업은 문화예술의 섬을 지향하는 제주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특화

된 발레 교육 프로그램이다. 발레를 전공하려는 청소년 100명 내외를 모집해 3박 4일 짙은 집중 교육으로 실력을 높이도록 이끌겠다는 취지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제주 참가자에 대해선 독일 탄츠올림프베를린 협력학교와 연계해 장학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8월 5-8일 제주한라대에서 진행되는 이번 교육에는 러시아 불쇼이발레

단 수석 무용수를 지낸 니나 아나니아쉬빌리 조지아국립발레단 예술감독, 울렉시 베스메르티니 탄츠올림프 실력을 높이도록 이끌겠다는 취지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제주 참가자에 대해선 독일 탄츠올림프베를린 협력학교와 연계해 장학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8월 5-8일 제주한라대에서 진행되는 이번 교육에는 러시아 불쇼이발레

는 '소소한 발레 공연'으로 발레리나, 발레리노를 꿈꾸는 아이들이 '지젤'에 나오는 마을처녀들의 춤, '라 바야데르' 중에서 부채춤, '백조의 호수' 중 백조들의 춤, '잠자는 숲속의 미녀'에 등장하는 꽃의 왈츠 등을 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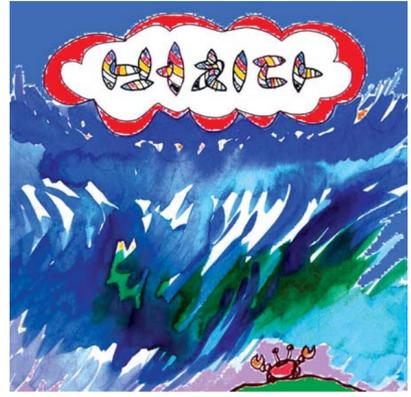
특히 이 기간에는 김경태 제주한라대 물리치료과 교수 등 전문가를 통해 무용수 부상방지를 위한 셀프 재활치료법과 운동요법, 무용수를 위한 바른 자세, 분장법을 배우는 시간도 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tanzolympasia.com) 참고. 박선희기자 sunny@halla.com

## 고재만의

### 제주어기암한판

<156>

구성: (사)제주어보전회 <재민그림글자 응용>



중 배 : "오맹이야- 그 곰닥호 왕생인 하늘서 잘 살았길여겨게." 오 맹 이 : "누님- 하늘서 몹시 펜하게 살았시민 잘도 좋으쿠다게." (오맹이는 봉황새가 잘도 아까와 경도 생각하엿신지 몰르케게.)

\* 제주어 풀이 \*곰닥하다(곰두글락하다, 곰들락하다) : <그림>곰다랐다. \*펜하게 살았시민 : 편안하게 살고 있으면. \*잘도 좋으쿠다게 : 매우 좋겠어요. \*생각하엿신지 몰르케게 :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들러퀴다(들러키다) : <움직>어지럽게 날뛰다. \*버치다(버집다, 집다, 제우다, 쥘다) : <움직>부치다. 힘어 보자라다. 버집다. \*누시 : <어찌>기어이. 기어코. 끝끝내. 도저히. 영영. \*들라불어불언게 : 달라붙어버렸지.

-부호- <이름>이름씨(명사)/<그림>그림씨(형용사)/<움직>움직씨(동사)/<어찌>어찌씨(부사)/<대어말>대어 품씨(대명사)/<생>생씨(수사)/<느낌>느낌씨(감탄사)/<토>토씨(조사)/<때>때가림씨/<의문말>의문말/<속담>속담 (출처: '제주말 큰사전' 송상조저, 한국문화사, 1991)

## 역사의 한 장면이 된 흑백의 기록들

### 사진가 김종현씨 개인전

80년대 '기억속의 제주' 150여점 사진집도 발간

그는 1980년대 카메라를 처음 구입해 제주 구석구석을 누볐다. 흑백 필름을 펼쳐보니 35년 전 사진 속 그 모습은 지금과 너무나 달랐다. 남아있는 것들보다 사라진 풍경이 더 많았다.

사진가 김종현씨(한국사진작가협회 제주도지회장)가 그 기록들을 모아 한 권의 사진집을 묶고 개인전을 연다. 이달 15일부터 20일까지 문예회관 제2전시실에서 펼쳐지는 '1980년

대 김종현의 시각-기억속의 제주' 전이다.

이번 전시에는 1980년대 제주도 풍광과 민속, 생태와 사람들을 담은 사진들이 나온다. 초가와 아름다리 풍낭(팽나무)이 서 있는 김녕리 올레길, 사들을 쟁겨 배를 타고 비양도로 자리돔 잡으러 가는 어부들, 어머니들의 발일 노동, 매립 전 탐동해안가 야경, 신제주초등학교 운동회 등 흑백 사진은 어느덧 제주생활사의 한 장면이 되었다.

김종현 회장은 "이 전시가 제주의 아련한 옛 모습, 부모님 세대의 생활상, 소중한 제주의 옛 기억들을 공유하는 기회였으면 한다"며 "아울러



김종현의 '자리 뜨레 가는 배'. 배를 타고 비양도로 자리돔을 잡으러 가는 어부들의 풍경을 담았다.

제주를 더 사랑하고 아끼고 공감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개막 행사는 첫날 오후 5시에 열린

다. 150여점이 수록된 사진집 출판기념회, 작가와의 만남이 예정되어 있다. 문의 010-6811-1133. 전선희기자

## 문화가 쏙지

### 해비치 초청작 '우기부기'

국립제주박물관이 제주해비치아트페스티벌 초청작으로 이달 14일 오후 5시, 15일 오후 2시와 5시 박물관 강당에서 '우기부기'를 선보인다.

두 개구쟁이들이 커다란 화이트보드에 그려낸 동물들이 프로젝트 영상과 만나 움직이는 장면이 펼쳐진다. 화면 위 낙서들이 지워지고 채워지며 끊임없이 새로운 모양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선착순으로 무료 입장권 배부. 문의 064)720-8035.

### 융복합 콘텐츠 제작 지원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은 '제주형 융복합 문화콘텐츠 상품제작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공모는 제주문화원형과 자유 주제 2개 분야로 총 6개 내외 프로젝트를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상품성과 시장성 분석, 기술인증 분야 등 외부 전문컨설팅도 이루어진다. 우수상품에 대해선 완성품 제작과 유통지원비도 별도 지원한다. 접수는 7월 12일 까지. 문의 064)735-0628.

### 더불어 연극제 참가팀 모집

제주연극협회는 이달 28일까지 제4회 제주더불어·놀다 연극제 참가 극단을 모집하고 있다.

이번 연극제는 제주연극협회 창작극인 '섬에서 사랑을 찾다'를 시작으로 해외팀 축하 공연, 다른 지역 극단 초청 작품, 제주연극협회 소속 회원단체팀 공연 등을 선보인다. 참가문의는 전화(010-9687-0031)나 이메일(yjy9687@naver.com)을 이용하면 된다.

### 중문 희경정 현민자 초대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여미지식물원 인근 희경정에서 현민자 초대전이 열리고 있다.

'만다라'란 이름을 단 이번 전시는 온 우주가 꽃이고 우리 모두가 하나하나의 신비로운 꽃이라는 마음을 담아 그려나간 작품들이 나왔다. 현 작가는 숲을 산책하던 중 자연에 만다라의 이미지가 있음을 깨닫고 꽃을 형상으로 만다라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이달 30일까지. 문의 010-3505-5763.

## 시조 옆 꽃처럼 피어난 그림과 글씨

### 김순국 시인 시화집 발간 천자문 시조쓰기 50편 담아

읽는 시, 듣는 시를 넘어 보는 시가 되었다. 시 한 편 한 편마다 시인이 직접 쓰고 그린 글씨와 그림이 더해졌다. 김순국 시인(사진)이 펴낸 시화집 '뒤뜰에 마디를 세운'이다.

이 시집의 해설을 쓴 고정국 시인에 따르면, 김 시인은 오래전부터 종종 녹내장을 앓아 책임기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래서 시인은 자연을 읽고 체험을 하는 길로 책에서 얻는 사유를 대신하곤 했다. 그에게 하루하루 삶의 이야기는 교과서나 다름 없다.

"법 없이 살아가라" 하시던 울 아 버지// 법전 한 번 눈길 없이 선량하게 잘 사신// 뒤뜰에 마디를 세운 대



나무가 선하다' ('뒤뜰에 마디를 세운' 전문)

그가 펴보인 50편의 시조는 천자문 시조쓰기 작품들로 일상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오히려 그 평범해 보이는 나날들에서 '기다려 거름이 되는 땅의 마음' ('흙')을 배우게 된다.

시집 곳곳에 꽃처럼 피어난 그림과 글씨는 시인이 20대 직장 생활 중에 익혀둔 서예에 근래 배우고 있는 캘리그래피와 수묵화를 입혀 탄생시켰다.

고향 제주를 떠난 4년째 청주에 머물고 있는 시인은 앞서 지난해 첫 시집 '반대편에 반짝이는'을 냈다. 책만드는집, 1만원. 전선희기자

기획보증보험 2억원 가입 연체

힐링 패키지 동남아의 흥진주!

제주직항 동남아시아 라오스 패키지

라오스 5일 비엔티엔 + 방비엥 핵심관광

6월 26일(수) 단1회 1인 999,000원

전세기 상품으로 성인/소아 요금 동일합니다.

● 바다가 없는 라오스(비엔티엔, 방비엥)  
가만히 있어도 힐링이 된다는 라오스는 최근 티비 프로그램 <꽃보다 청춘>, <몽쳐야 뜬다> 등 다양한 매체에서 방영되어 생소했던 나라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여행지로 발전했다. 특히, 유럽인들에게 널리 알려져 동남아의 흥진주라고도 불리고, 고즈넉한 풍경의 거리를 거닐면 마치 우리나라의 1970년대를 보는 듯하며, 또한 소도시 방비엥 지역의 풍경은 중국의 계림을 쏙 빼달아 산수가 아주 화려하다.

협찬: 티웨이항공

라오스 골프 3박 5일 (54홀) 1인 1,290,000원

그린피/캐디피/전동킥보드/클럽중식 포함 캐디팁 별도(18홀당 1인 10\$, 싱글차지 별도)

포함사항: 국제 항공료(TAX+유류할증료), 숙박료(2인1실), 식사/운송/입장료, 가이드기사 비용, 여행자보험료 불포함사항: 기타개인비용, 현지선택관광, 가이드기사 봉사료(3만원/1인), 부가세(VAT)

예약문의 스키아관광 759-7788 늘푸른여행사 726-3344 누리여행 758-5400 파랑새여행사 744-1233